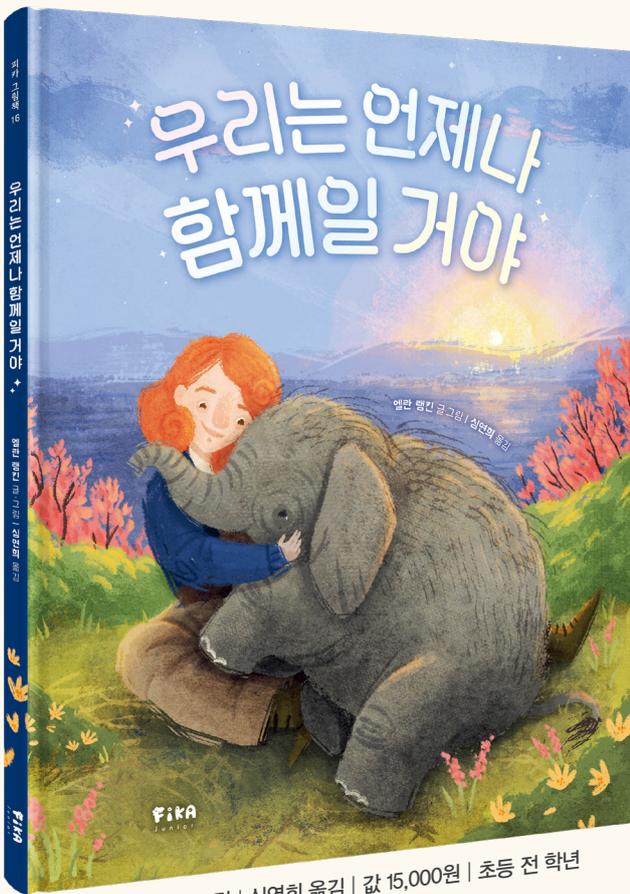


우리는 언제나 함께일 거야

독서 활동지

작고 여린 존재들의
용감한 결의와 사랑을 그린 감동 실화!



엘란 랭킨 글 · 그림 | 심연희 옮김 | 값 15,000원 | 초등 전 학년

“사육사 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두려움에 떠는 아기 코끼리에게 항상 옆에 있어 준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이 얼마나 무거운지 사육사 언니는 직감했을 겁니다. 도시에 폭탄이 떨어지는 밤, 코끼리를 집에 데려갈 때마다 이웃 주민들에게 들키지 않을까, 코끼리가 사고를 치지 않을까 마음을 졸였을 거예요. 그 많은 먹이는 어떻게 구하고, 똥은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사육사 언니는 그 어려움을 다 이겨 냈어요. 아기 코끼리의 눈물을 모른 척하지 않았어요. 용감한 마음으로요. 사육사 언니는 작고 여린 아기 코끼리가 힘차게 자라서 거대한 코끼리가 될 날을 상상하며 무서운 전쟁을 버텼을 거예요. 매일 자라는 아기 코끼리의 새로운 모습에 기뻐하면서요. 작고 여린 존재의 눈물을 모른 척하지 않고, 기꺼이 끌어안는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마음이에요.”

- 집필 우서희(서울자운초 교사, 《철학 버스》 저자)

현직 초등교사가 전하는 《우리는 언제나 함께일 거야》의 매력



여러분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 코끼리의 눈을 가까이서 들여다본 적이 있나요? 예전에 태국에 있는 어느 코끼리 보호소에서 코끼리를 만났어요. 그 보호소에서는 방문객을 위한 체험 일정으로 방문객이 코끼리 어깨에 올라타 보호소 한 바퀴를 둘러볼 수 있게 했어요. 일정이 끝나갈 무렵, 제 옆자리에 있던 코끼리의 큰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코끼리 사육사에게 물어보았어요.

“코끼리가 왜 우는 거예요?”

“코끼리는 가끔 그래요.”

이해할 수 없는 사육사의 답변이 제 가슴 속에 남았어요. 시간이 한참 흘러 아기를 낳고, 두 팔로 안고 오랜 시간 함께 지나고 나서야 그 코끼리의 눈물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코끼리는 사람들을 어깨에 짊어지고 걸어 다니는 게 힘들었던 거예요. 하기 싫다고 반항하지도 않고, 울부짖지도 않고, 조용히 눈물만 흘리면서요. 코끼리 보호소라는 곳에서 코끼리를 아프게 했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오랫동안 짓눌렀어요.

코끼리의 눈물이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 토프르 굴러다니고 있었나 봐요. 《우리는 언제나 함께일 거야》의 아기 코끼리가 폭격을 맞고 있는 도시의 동물원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생각하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마 이 아기 코끼리도 조용히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다행히도 아기 코끼리 곁에는 다정하고 따뜻한 사육사 언니가 있었습시다. 귀를 쓰다듬어 주는 사육사 언니의 따뜻한 손길과 나지막한 목소리를 느끼면서 아기 코끼리는 눈물을 거두고, 매일 밤 편안하게 잠들었을 테지요.

사육사 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두려움에 떠는 아기 코끼리에게 항상 옆에 있어 준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이 얼마나 무거운지 사육사 언니는 직감했을 겁니다. 도시에 폭탄이 떨어지는 밤, 코끼리를 집에 데려갈 때마다 이웃 주민들에게 들키지 않을까, 코끼리가 사고를 치지 않을까 마음을 졸였을 거예요. 그 많은 먹이는 어떻게 구하고, 똥은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사육사 언니는 그 어려움을 다 이겨 냈어요. 아기 코끼리의 눈물을 모른 척하지 않았어요. 용감한 마음으로요. 사육사 언니는 작고 여린 아기 코끼리가 힘차게 자라서 거대한 코끼리가 될 날을 상상하며 무서운 전쟁을 버텼을 거예요. 매일 자라는 아기 코끼리의 새로운 모습에 기뻐하면서요. 작고 여린 존재의 눈물을 모른 척하지 않고, 기꺼이 끌어안는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마음이에요.

우서희(서울 자운초 교사)

학부모, 교사, 아이들과 함께하는 북클럽, 블로그 '철학하는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철학 버스》가 있다.

인스타그램: @namuym | 블로그 <철학하는 교실> https://blog.naver.com/namuym_wooseohee



우리는 언제나 함께하는 사이!

꽃밭 위에서 아기 코끼리와 언니가 서로를 끌어안고 있어요. 책 제목 《우리는 언제나 함께일 거야》처럼 둘은 언제나 함께하는 사이일 텐데요. 아기 코끼리와 언니는 어떻게 처음 만나게 되었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아래 그림을 보고 마음껏 상상해 보세요.



(예시) 아프리카 여행을 하다가 아픈 아기 코끼리를 수의사 언니가 발견하고 치료하면서 만났다. 뒤로 보이는 드넓은 풍경이 여행지 같다.



내가 사육사라면?

동물원에 가 본 적이 있나요? 동물원에는 사육사가 동물들이 배고프지 않게, 아프지 않게, 심심하지 않게 돌봐 줍니다. 사육사가 되어 동물을 돌본다면 어떤 동물을 돌보고 싶은가요? 그 동물에게 무엇을 해 주어야 할까요?



예시) 판다를 돌보고 싶다. 판다에게 대나무와 죽순을 주고, 심심하지 않게 새로운 장난감도 만들어 줄 거다. 동과 오줌도 깨끗하게 치워 줘야지.



내 곁에 있어 주세요!

전쟁이 나자 어마어마한 폭발 소리에 아기 코끼리가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무서워서 떨고 있는 아기 코끼리를 위해 사육사 언니가 몰래 동물원에 들어와 아기 코끼리를 돌봐줍니다. 여러분도 무서웠던 일이 있었나요? 그때 내가 누가 내 곁에 있어 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나요? 왜 그런가요?



밤마다 커다란 기계가
하늘을 날면서
도시에 이심한 걸 떨어뜨렸어.

굉 소리가 나면서 맘이 흔들렸어.
주황색 불꽃이 하늘 한가득
완하게 넘실댔어.
연기가 실하게 나서
다른 동물들이 보이지 않았어.
대체 무슨 일이지?
저 큰 소리는 어디서 나는 거지?
난 하나도 알 수가 없었어.

어마어마한 폭발 소리에
귀가 아팠어.

그런데 내 옆엔
아무도 없었어.



무서웠던 일

내 곁에 있어 주면 좋겠다고 생각한 사람과 그 이유

예시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천둥이
우르르 파광 쳐서 무서웠다.

예시 엄마, 엄마 잠옷을 만지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나도 장난꾸러기 아기?

아기 코끼리는 사육사 언니네서 지내면서 화초도 뜯어 먹고, 밀가루로 목욕을 하기도 하고, 변기물을 마시기도 합니다. 아기 코끼리처럼 여러분도 아기였을 때 어떤 장난을 쳤었나요? 어른들께 물어보세요.



예시) 할머니가 요리하는 사이, 네가 소금통을 꺼내서 바닥에 흘뿌린 적이 있었어.



아기 코끼리아, 우리 음악 들을까?

아기 코끼리를 위한 장소에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축음기, 뜨개질을 할 수 있는 털실, 사진, 책들이 보여요. 무서워 하는 아기 코끼리를 위해 나는 무엇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비어 있는 공간에 그림을 그려 멋지게 꾸며 보세요.



예시 화분, 당근 씨앗

예시 코끼리가 좋아하는 당근을 기를 수 있는 화분을 준비하고 싶다.

